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1월 1일(주일) 제1317호

‘함께! 미디어선교’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11월 1일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 약정서, 전화, 온라인 참여

CGNTV가 11월 1일 ‘함께! 미디어선교’를 주제로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미디어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CGNTV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11월 1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신청,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CGNTV 임직원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 CGNTV의 사역과 비전을 소개한다.

온누리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온누리교회 영상 예배(1~4부)가 끝나면 2020년 CGNTV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가 방영된다.

방송인 박지윤과 가수 김영우가 사회를 보고, CGNTV와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CGNTV 정기후원 모금방송 ‘함께! 미디어선교’를 시청하면서 전화로 정기후원약정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11월 1일 오후 8시 10분에는 CGNTV 정기후원의 달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나는



사진은 지난해 CGNTV 정기후원약정 캠페인.

섬 선교사입니다’가 방영된다. ‘땅 끝의 증인들-나는 섬 선교사입니다’에서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와 주변 섬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이정환, 신영삼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CGNTV는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에 CGNTV의 노하우와 콘텐츠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 예배의 문이 닫혔는데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270여 개 미자립교회와 군 교회 등에 영상 예배 장비와 노하우를 전수했다.

CGNTV 대표 이용경 장로는 “CGNTV가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후원”이라며 CGNTV 정기후원 약정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관

련기사 5면).

이날 CGNTV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드림통 수거행사도 실시한다. 드림통은 각 캠퍼스에 설치된 CGNTV 후원 안내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96-2243

홈페이지: <http://www.cgntv.net>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잊지 못할 따뜻함을 선물하세요”

엔젤트리 사연 11월 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

“늦은 나이에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한 가을(가명)이에게 예쁜 후드티를 선물해주세요.”

“통학 시간만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소망(가명)이가 온라인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해주세요.”

2020 엔젤트리에 이웃들의 사연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제 엔젤트리 사연접수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다. 주변에 도움만한 이웃이 없다고 지나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사랑과 관심을 주고 싶은 이웃, 응원하고 싶은 이웃,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은 이웃이 있다

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엔젤트리에 접수된 사연의 주인공들에게 잊지 못할 따뜻함을 선물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할 때는 대상자와 접수자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입해야 한다. 11월 8일까지 접수된 2020 엔젤트리 사연은 12월 13일까지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된다. 엔젤트리 사연을 뽑은 성도들은 가급적 일주일 이내에 선물을 발송하고 사회선교본부에 선물발송 결과를 알려주면 된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11월 1일 오전 11시 30분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11월 1일 창립 16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전 11시 30분 남양주 온누리교회 3층 본당에서 드린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에서는 이해영

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설교하고, 연합성가대의 특선과 비전선포식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창립예배를 드렸다. 지역사회 복음화와 긍휼사역, 선교사역 등의 비전을 품고 섬기고 있다.

11월 비전헌금, 한동대학교 후원

11월 7일과 8일 봉헌하는 11월 비전헌금은 한동대학교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성, 인성, 영성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994년 12월 설립됐다. ‘공부해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를 모토로 단기간에 기독교명문사학으로 발전했다. 온누리교회 1호 장로인故 김영길 장로가 초대총장 역임(1995년~2014년)하고, 2016년 6월부터는 한동대 명예총장을 맡아 대학발전에 매진했다. 지난해 6월 30일 향년 81세로 소천했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인식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존 듀이를 비롯한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1933년 인본주의자 선언1에서 “우주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신론의 시대는 갔다고 선포한다. 그로부터 40년 뒤 1973년 인본주의자 선언2와 2000년 개정된 인본주의자 선언3에서도 “초자연의 존재를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초자연은 인류의 생존과 완성에 어떤 의미도 없다. 유신론자가 아닌 우리는 신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들의 존재와 기원의 근거를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런 까닭에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질문 자체를 부정한다.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유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신론의 각 종교에는 그들의 경전이 있고, 그 경전에는 신 존재의 여부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신학은 그 경전을 연구하여 신이 존재함을 어떻게 아는지, 그 신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신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학이 발달된 종교는 많지 않다. 범신론인 불교, 힌두교와 그 가르침을 서구적으로 해석한 뉴에이

지는 신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이 발달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에 신성이 있고 심지어 자기자신도 신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신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은 일신론적 종교이나 전능하신 알라에 대해 깊이 알고 하거나 연구해서 구체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이 발달될 수 없다. 그저 더 높은 권위자인 무함마드가 해석한 것을 따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약 성경과 그 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교회의 생성과 박해 속의 성장과정을 통해 초기부터 필요에 의해 신학이 발달하였다.

기독교의 신학은 하나님이 계시(스스로를 드러내고 보여주시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일반계시는 자연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신다.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경관을 통해, 자연을 연구하며 만나는 숨겨진 오묘한 원리와 법칙을 통해, 창조과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양심을 통해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롬 1:19-20).

반면 특별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스스로를 계시하신 내용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해두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딤후 3:16).

모든 계시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는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 죄 없는 육신을 사용한 구속의 복음을 약속하신 사건을 통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유일하고 설득력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유신론의 신이 각각 어떤 존재인가는 그 종교들의 경전과 그것을 설파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뉴에이지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신은 창조물로 모든 개인 심지어 모든 생명체가 신이다. 모든 개인이 신이고, 신은 모든 개인이므로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이다. 스타워즈 같은 뉴에이지 영화에서는 신을 에너지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을 향하고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곳으로 가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뉴에이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며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상대주의, 모든 종교는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에 반해 일신론은 유일신, 절대 진리, 유일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유일신이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들을 창조하지만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이신론(理神論)적 특성을 가진다. 대신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보내어 인간의 행위들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인간은 알라가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

으나 알라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복종할 뿐이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알라 앞에 서게 되며 그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평가받고 해명해야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성경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나타난다. 이슬람의 알라처럼 인간과 거리를 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약속을 맺고, 삶에 개입하고, 심지어 인간을 위해 죽으며, 인간 안에 내주하여 동행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 자신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허용하셨다.

기독교의 신학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전도도 그를 소개하는 것으로, 기독교 변증도 그를 지켜냄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한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낼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때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야 한다(벧전 3:15).

묵상: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방법을 생각해보자.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부부는 둘째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큰 의욕을 보이지 않아 늘 걱정이 많았다. 더구나 둘째 아들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남 앞에 서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다.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줍음을 많이 탔다. 그런 아들을 보며 ‘어렸을 때 엄마아빠가 갈등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사춘기 때 심하지는 않았지만 방황이 있었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기도 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었다. 아들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숙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구는 자녀의 인생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다. 아이들은 보통 다섯 살만 돼도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과 관계 맺는 훈련을 하고 인격을 형성해 간다.

오히려 부모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친구들에게 더 큰 영향을 받는 시기가 사춘기다. 그래서 나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자녀와 친구들이 늘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했다.

둘째 아들 주변에는 신실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엄마아빠가 사역으로 바쁠 때 둘째 아들은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꿈을 키워 나갔다. 나는 둘째 아들에게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묻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주위에 늘 신실한 친구들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들과 함께 믿음을 키워나가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진로와 학업, 가정, 교우관계 등 구체적인 기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 둘

째 아들은 믿음의 친구들과 건강한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다. 교회의 여러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점차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둘째 아들을 위해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었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영향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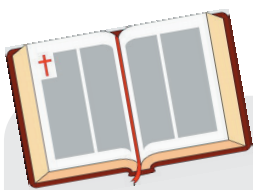
아이는 부모의 격려와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당당한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누군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될 수도 있다.

내 둘째 아들 역시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성장했다. 둘째 아들과 친구들은 서로 가정을 꾸린 지금도 자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로 다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며 각자 가정을 꾸려가면서 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해 가고 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둘째 아들에게 친구들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 어쩌다 둘째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면 아들을 만난 것처럼 반가움과 고마움을 전한다. 우리 둘째 아들이 멋진 남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축복해주어야 한다. 자녀의 인생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이기 때문이다. 내 자녀만 잘 돼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이 학교, 교회, 사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과 좋은 우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참으로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교훈을 새롭게 얻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 올바른 위치, 올바른 직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완공 이후 백성들을 생활방역 체제로 이끌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백성들이 흥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대적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축하잔치도 하고, 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난 50일 동안 가졌던 긴장을 전혀 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위협도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벽 완공을 방해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세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산발랴, 도비아, 게셈입니다. 그중에서 도비아는 당시 유다 지도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제적 동맹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훈인을 통해서도 여러 귀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52일 중간에 도비아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느헤미야를 압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통한 방어 계획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방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언제나 목표 그 너머를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성벽 재건이 목표였지만 느헤미야는 성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리더십 너머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위치에 올바른 직임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리더십의 최고 절정은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해 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말했을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십은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후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생활예배자’로 다시 서야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니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니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1~2절).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벽을 세운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회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당시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영적 지도자 학개와 스가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하여 백성들을 이끌어 1차 귀환한 백성들이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대적들의 끊임 없는 공격과 위협 속에 시달렸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제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성전에서의 제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레위인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 시대 영적생활 방역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생활예배자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개인 생활예배인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묵상, 개인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 시대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손을 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을 지나면 신앙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역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높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보다 완치자

가 월등히 많은 것은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어디서 옵니까? 함께 모이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예배에서 옵니다. 이것이 영적생활 방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기간 동안 큐티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청자를 넘어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생활 방역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충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지도자로 세워집시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세운 이후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와 사회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자신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끌어갈 책임자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은 행정책임자인 자신의 동생 하나니, 또 한 사람은 군사책임자 하나니입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형편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가 말씀 곳곳에 나옵니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느 4:23).

하나니는 옷을 벗지 않고 일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집중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할 때도 사례를 받지 않았고, 그 형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느 5:14).

느헤미야와 그의 동생 하나니는 청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동생이라고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니는 성벽 재건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형의 헌신을 끌어낸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영문의 관원 하나니입니다. ‘영문’은 OP(Outpost) 즉 초소장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작은 초소를 성실하게 관리하는 그를

보고 전체 군사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니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니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2절).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충직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나니도 동일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생활 방역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합니다.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집시다.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문지기입니다. 모든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보다 중요한 사람이 바로 한두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만일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충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역체계가 뚫린 것입니다. 영적방역 체계가 뚫린 것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게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입니까?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이 수많은 국민들이 도둑질해서입니까? 소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도둑질해서 아닙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많은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켜서입니까? 아닙니다. 소수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다툼이 아니라 소수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게 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회 지도자든 교회 지도자든 지도자는 문지기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니의 충직함, 정직함, 성실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 데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3~4절).

성문을 어떻게 지킬지 철저히 대책을 세웁니다. 해가 중천에 떠야만 성문이 열립니다. 해가 환할 때만 잠시 개방을 허용합니다. 그런데도 철저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14면에 계속)

여성 법조인이 바라본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우리의 생명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각계각층에서 낙태찬반은 물론이고 낙태 허용 조건, 낙태죄 전면 폐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변수가 없다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낙태죄 개정안을 여성 법조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연취현 변호사(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자문변호사)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그녀는 두 딸을 낳고 키우고 있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 편집자 주



연취현 변호사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자문변호사)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시간적 한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잠잠하던 정

부가 최근 낙태죄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을 보면서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인데, 24주 내에 갖춰야 할 일정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넣어버렸다.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낙태가 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 낙태의 95%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낙태사유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한 국회의원에 의해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낙태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다른 의원의 기사도 읽은 적이 있다.

**최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역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낙태죄가 폐지된다한들 내 삶에서 달라질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나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임신계획도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나는 결혼을 아직 안 했고, 계획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이라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저 요즘 세상이 이상하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 권리의 식만 높아졌다고 혀를 끝끝 차며 외면하면 그만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모든 원론적인 주장에 동의하지만, 나와 관계 지어지면 내가 최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이다.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 동물도 보호하고, 사형수도 보호하고, 배아도 보호하고,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친다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아가 비록 말도 못하고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형법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의 결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사회질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하고, 참지 못하면 처벌하는 것이 형법이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물건이나 막 던지고 부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이 파손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하는 것이 사회의 규범이다.

흔히들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형법이 바뀌는 거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면 생명에 대한 절대 진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가?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

나는 낙태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차피 낙태죄가 존재할 때에도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현재 검찰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내부 기준을 정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는 사건처리 기준도 가지고 있다.

그럼 또 이런 반론을 할 것이다. 처벌하지도 않는 법 규정을 왜 내버려 두냐고 말이다. 왜

나하면 그것이 사회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경미한 폭행, 상해는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의 예를 보아도 지금은 위험성이 인지되어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예전에는 훈방조치 되는 경우도 많았고, 누구나 한 잔쯤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왜 그때 ‘경미한 음주 이후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혹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규정이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적 안주 내지 안이함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야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깊은 곳에라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인지되면 처벌을 해서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아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 생명은 너무도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 같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 내 몸속에 자리 잡고 들려주었던 힘찬 심장박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낙태는 모체에 대한 위험도 매우 크다. 특히 임신 20주 이후 모체의 위험도는 2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우리 모두 한때 태아였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아 시절을 겪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자. 비록 황당한 상상이지만, 그 시절 마리아가 너무 괴로워서 혹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낙태를 결정했다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번 낙태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어느 기간만큼이든 낙태는 허용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직접 관계없다고 외면하는 사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조용히 낙태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만에 하나 우리 가정에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길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설득하다가 아동인권 침해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 자녀가 나에게 알려지도 않고 혼자서 그 차갑고 아픈 경험을 하고 마음의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더 이상 후회할 곳이 없다.

미국에서는 1973년에 임신 24주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벌어진 생명경시 풍조와 끝없는 인권만능주의의 폐해 때문에 낙태죄에 대해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를 임명할 것인가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될 정도로 주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다. 현재 낙태를 비판하고 있는 배터 대법관 후보가 상원 인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상황을 보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상황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역전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생명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회개와 통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하나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1. 온라인 의견 제출(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들어가 입법예고란 검색란에 ‘형법’으로 검색 (공고번호 제2020-307호)

2. 팩스, 전화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참조

전화 02-2110-3712, 팩스 02-3480-3119

미디어는 영적 전쟁터다

그 전쟁터 최선봉에 서 있는 CGNTV

21세기 미디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손만 닿으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에는 이단, 동성애, 포스트모더니즘, 우상,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등 수많은 영적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복음을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CGNTV가 미디어의 영적 전쟁 최전선에 서 있다. 오늘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미디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중국 사이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제작한 영화들이 검색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각 국가별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과 더빙까지 맞춰 각 국가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많게는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 다양한 이단들도 국내 포교 뿐만 아니라 해외 포교를 위해 수십 개의 언어로 자막을 달아 영상들을 올리고 있다. 이단들의 콘텐츠가 훈련받은 크리스천들이나 미디어에 일가견이 있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허점이 많고 조악할지 몰라도 치명적인 독인 것은 분명하다.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김은강 자매(상록교회)도 바른 미디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성경을 알려준다며 일반적인 기독교 콘텐츠처럼 보이는 이단들이 만든 영상들이 아주 많아요. 검증되고, 무분별하지 않은 기독교 콘텐츠들이 꼭 필요합니다.”

해외 선교사들도 이단 콘텐츠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요셉(가명) 선교사도 미디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무슬림권에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들이 많아요. 무슬림들이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간증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검색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들의 영상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힘든 책과 글이 보급되지 않은 오지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봐요.”



차진우 군중 목사가 CGNTV에서 지원한 장비와 노하우를 가지고 온라인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CGNTV의 미디어 선교 전략 노하우와 콘텐츠를 나눈다

CGNTV의 미디어 선교 전략은 CGNTV가 가진 노하우, 콘텐츠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이다.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디어 사용이 급증했고 전세계에서 미디어 선교를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시작됐다. CGNTV는 미디어의 선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아낌없이 노하우와 콘텐츠를 나눴다. 인도네시아지사는 ‘성경공작실’과 ‘예수님이 좋아요’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해서 공급했고, 오디오성경을 제작하고 보급하는 FCBH

지부의 사역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레레 성도(인도네시아)는 자녀들과 함께 CGNTV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있다.

“CGNTV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콘텐츠들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면 아이들과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 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예배당 예배가 중단된 상황에서 영상 예배를 쉽사리 시작할 수 없는 작은 교회를 지원했다. CGNTV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으로 270여 개 교회에 영상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장비 제공과 컨설팅을 했다. 고상원 목사(의정부 예수소망교회)는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을 계기로 CGNTV 후원을 시작했다.

“CGNTV의 지원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다음세대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올해 영상으로 드린 성경학교가 가장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으 시던 한 성도의 어머니가 영상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상이 나오지 않아 걱정하는데 한밤중에 CGNTV 직원분이 노랑진에서 의정부까지 한 걸음에 오셨습니다. CGNTV 후원이 하나님 성전 회복을 위한 예물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매달 CGNTV를 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중 목사, 군중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군선교 전문가 양성교육’도 좋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군중 목사들은 “언택트 사역 전문가 과정을 통해 현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 “보급된 장비가 온라인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디어 선교를 위한 CGNTV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2021년에는 기독교 미디어 라이브러리 ‘풍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풍당’은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의 허브로 성도의 영적 성장, 작은 교회의 교육 채널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다. CGNTV는 더 풍성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한국 교회 콘텐츠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이용경 장로
(CGNTV 대표)

CGNTV는 지난 2005년 개국한 이래 위성을 통해 170여 개국에 방송을 송출하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께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CGNTV

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180여 명의 직원들은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힘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인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해 CGNTV는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준비하여 온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10월부터 ‘풍당’이라는 이름으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00여 명의 제한된 사용자를 중심으로 시험 운영 후 내년 초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양육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교회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한 미디어 선교에도 계속해

미디어 선교의 비전

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하여 세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많아진 유튜브 사용 시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을 수용하여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유튜브에서 구원을 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과 미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배포되고 있는 인터넷신기 ‘드림온플러스’도 CGNTV 미디어 선교의 미래에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위성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CGNTV를 시청할 수 있는 ‘드림온플러스’는 한국 방송뿐만

아니라 미주, 일본, 중문 방송까지 지원하면서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선교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기 위해 많은 분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CGNTV에 허락하신 비전은 앞으로 펼쳐질 미디어 선교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은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디어 선교의 미래에 동역자로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CGNTV를 후원하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기쁨으로 이 동역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

교회가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링.링.링(튜터링, 멘토링, 카운슬링)’ 프로젝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생활 전반에 수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세대별 문제가 참으로 다양하다. 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더 좁아진 취업 시장 탓에 울고 싶은 심정이다. 중장년들은 갑작스러운 실직과 앞당겨진 은퇴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노인들은 더 깊숙이 파고든 외로움과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세대별 아픔’을 주제로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드러내고, 교회가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세대는 청소년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입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신민우 학생의 고백이다. 신민우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식부터 대학교 OT(Orientation)와 MT(Membership Training)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다. 벚꽃 핀 캠퍼스를 걷는 새내기 의 로망도 산산조각 났다. 수업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기들 얼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난 1월 말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삼시간에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기관들이 문을 닫았고, 행사와 활동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대학교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줄줄이 문을 걸어 잠갔다. 등교는 물론이고, 학교에서 진행하던 각종 행사와 축제, 사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과 졸업식 등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해봐야 할 경험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진로와 학업의 혼란, 갈 곳 잃은 청소년들

코로나19 사태로 청소년들이 놓쳐버린 것은 학교 행사 뿐만이 아니다. 학교 문이 닫히면서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학업과 진로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까지 세워 둔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은지 학생(19세)에게 지난 7월은 악몽이었다. 정은지 학생은 지난 7월 취업 예정이던 회사로부터 채용보류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회사의 운영난이 원인이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취업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는데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저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의 20대가 시작부터 꼬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속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길이 막혔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회사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채용인원을 줄

이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 기업들도 줄어들고 있다. 취업을 위한 현장실습과 채용박람회 등의 기회를 얻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인문계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도 상당하다. 곧 고3 수험생이 되는 김지성 학생(18세, 과외웨이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생겼다.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교내 활동과 학교 성적을 잘 성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의 모든 활동과 수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집중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이전과 다른 학업환경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교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다 보니 답답하고 숨쉬기도 불편합니다. 산소가 잘 안 통해서 수업시간에 계속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됩니다.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이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꿈드림센터 같은 청소년기관이 장기간 휴관에 들어갔다. 센터에서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업훈련을 받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루 아침에 갈 곳을 잃었다. 학업을 이어가지도, 취업을 준비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에도 빨간불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표한 ‘제2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느끼는 화,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이 어른보다 두 배나 높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9~24세 청소년 자녀를 둔 보호자 198명과 청소년 9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청소년과 보호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청소년 59.8%가 불안, 36.6%가 짜증, 31.7%가



우울을 경험하고 있었다. 화, 분노 감정의 경우 청소년이 28.1%, 보호자가 14.7%로 청소년이 두 배 더 높게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17~19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불안, 걱정, 두려움의 감정이 높았다. 조사에 응한 청소년 중에서 과반이 넘는 수가 학업 및 진로의 불투명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폐쇄, 온라인 개학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변화가 학업이나 진로에 민감한 고등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초등학생 형제가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다 집에 불이 나 형은 중태, 동생은 사망한 사건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등교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실시하던 중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끼니를 챙기지 못하거나 학교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집에 방치되는 청소년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교회가 놀이터이자 안전한 울타리 되어주자

그렇다면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학업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을 해주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고,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다. 본지에서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링.링.링(튜터링, 멘토링, 카운슬링)’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튜터링’이다. 지난 7~8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실시한 ‘튜터링 커넥트’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튜터링 커넥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달란트를 가진 청년들이 교사가 되어 학습지원을 해준 여름사역이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습지원을 제공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튜터링을 코로나19로 인해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둘째, ‘멘토링’이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는 공동체별로 멘토들이 존재한다. 청년들의 신앙과 삶,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워진 교회 리더십들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있다. 이 좋은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인해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셋째, ‘카운슬링’(심리상담)이다.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다. 온누리교회의 자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있는 상담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상담실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태블릿PC나 노트북 등이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가정에서 돌봐줄 어른이 없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교회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

조선 선교 그리고 선교사

‘항상 있는 열매(fruit that will last)’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성주명 장로
(여의도공동체, 이화
의료원 내과교수)

필자는 코로나19 광풍(狂風) 속에서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로제타 홀 선교사가 쓴 일기(영문판)였다. <로제타 홀의 일기>(Diary of Dr. Rosetta Hall, Esther Foundation, 2016년)는 총 4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을 손녀딸인 Mrs. Phyllis Hall King과 여러 사람들이 두 세대 동안 보관해오고 있었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130여년 전 구한말로 돌아가 로제타 홀 선교사 부부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헌신하셨던 귀한 삶을 알아가며 때로는 목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다. 로제타 홀 선교사를 기억하며 두 번에 걸쳐 그분의 생애와 선교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20살 로제타의 서원
교사에서 의료선교사로

로제타 선교사는 20세 때 첼들러라는 인도 선교사의 간증을 듣게 된다. 인도의 여성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차별대우를 받는 부당함을 들으며 그녀는 어렵고 억압된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사의 삶을 서원하게 된다. 당시 교사였던 로제타 선교사는 방향을 전환해서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가 졸업하고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여성 해외 선교부)의 후원을 받아 1890년부터 5년 동안 의료선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890년 8월 21일 로제타 선교사는 뉴욕 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랑하는 부모와 눈물의 작별을 하고 조선을 향해 떠난다. 로제타 선교사의 부모님과 여동생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일기에는 로제타 선교사가 어머니와 주고받은 사랑스런 편지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편지들은 필자가 해외에 있을 때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때를 떠올리게 했다. 언니 로제타의 사진을 하루에 두 번씩 보고 있다는 동생 애니의 편지를 보며 자매들끼리도 무척 따뜻한 관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친구이자 간호사인 Miss Lewis와 훗날 남편 윌리엄 홀(William Hall)을 소개시켜주는 Mrs Skidmore의 기도와 권고를 받으며 25세 독신의 몸으로 뉴욕 기차역을 떠난다. 이때 로제타 선교사가 붙잡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8절 말씀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

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제타 선교사는 선교 기간 내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그 태도 즉, 종의 모습을 추구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인생의 큰 사건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차후에도 종종 만나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욱 그녀를 잡아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하는 친밀함과 신뢰하는 믿음이었다. 일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자신을 유용하게 사용하실(paths of usefulness)’이다.

뉴욕을 떠난 기차는 2주 만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9월 4일). 로제타 선교사는 ‘S. S. Oceanic’이라는 배를 타고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 1890년 10월 10일 부산에, 10월 13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까지 한 달 10여 일이 소요된 셈이었다. 일기에서는 이 과정을 너무나 소상히 기술하고 있어서 필자는 마치 로제타 선교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 기간 동안 로제타 선교사는 뱃멀미도 하고, 함께 배를 탄 사람들과 갈등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바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에 3:22-23)라는 고백으로 노래하곤 했다. 고생스런 여행길로 여기기보다는 조선인에 대한 놀라운 구원사역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에 오히려 특권으로 여긴다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 깊은 겸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보구여관에서 조선 여인들을 진료하다

로제타 선교사는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인 1890년 10월 15일 미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부에서 설립해준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은 심한 남존여비 사회였다. 여성들은 많은 경우 이름이 없거나 어느 동네 출신 혹은 누구(아이)의 어머니로 통했다. 더 나아가 여자 환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여주지 못하는 억압된 관습사회였다. 이 상황에서 로제타 선교사는 이화학당에서 데려온 김점동이라는 한국 여성을 의료 조수로 선발하였다. 김점동은 후에 박유산과 결혼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에스더 박’이 된다.



로제타 선교사가 처음 의료선교 활동을 했던 보구여관(保救女館,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이다.

로제타 선교사가 한국에서 진료 첫 날 목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이 말씀은 그녀의 사역의 원동력이자, 삶의 목표가 되는 말씀이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 안에 머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때 환자들이 질환에서 치유될 뿐 아니라 그들이 구원 받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열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명성과는 다르게 오래 가는 ‘항상 있는 열매(fruit that will last; 요 15:16)’임을 깨닫게 되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한국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늘 관계 중심이었다. 뉴욕에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이자 간호사인 Lewis를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에 이화학당의 교사이자 통역관이던 Miss Rothweiler와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그녀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그녀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 결과 서로 화해가 이뤄졌고, 나중에는 함께 일하는 데서 오는 시너지도 경험한다. 그녀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애니, Miss Bengel, 김점동, 친구이자 간호사 Miss Lewis, 5명의 학생들(오와가, 애니, 봉순, 수잔, 메리 등 my girls), 학생 봉순의 어머니인 사라, 한국 최초 여선생인 이경숙(Priscilla)과도 따뜻한 지지의 관계를 유지하는 등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다.

로제타 선교사는 보구여관에서 손가락이 붙은 환자, 화상 환자, 염증괴사, 성병 환자 등을 포함해서 무수한 환자들을 돌봤다. 이밖에도 왕진 가방을 들고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들을 치료했다. 하루는 로제타 선교사가 심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녀는 환

자 가족들에게 피부 절편(切片)을 공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모가 주신 몸에 손을 대지 않는 관습으로 인해 피부 절편을 공여 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 로제타 선교사는 자신의 팔뚝과 여러 부위에서 피부를 벗겨서 심하게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수차례 공여했다. 면역학적으로 일치하지 않기에 그 피부 절편이 성공적으로 또 영구적으로 환자의 화상 부위에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피부가 화상으로 인해 벗겨진 부위에 박테리아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 또 화상 부위를 통한 체액 손실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로제타 선교사의 선하고 용기 있는 실천에 힘입어 화상 환자는 상태가 좋아지고, 큰 부작용에서 회복되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이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그녀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헌신과 사랑의 희생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소개할 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로제타 선교사는 매일 아침 기도모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부인네들에게 성경공부를 인도하며 열심히 살았다. 비는 시간에는 한글공부를 했다. 또한 그녀는 정동 보구여관의 환자를 돌보며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였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인생이며 그분의 손에 잡혀있습니다. 나는 주인인 그분의 손에 잡혀있습니다. 나는 주인인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곤 했다. 또한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사 42:16)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자신과 조선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신뢰했다.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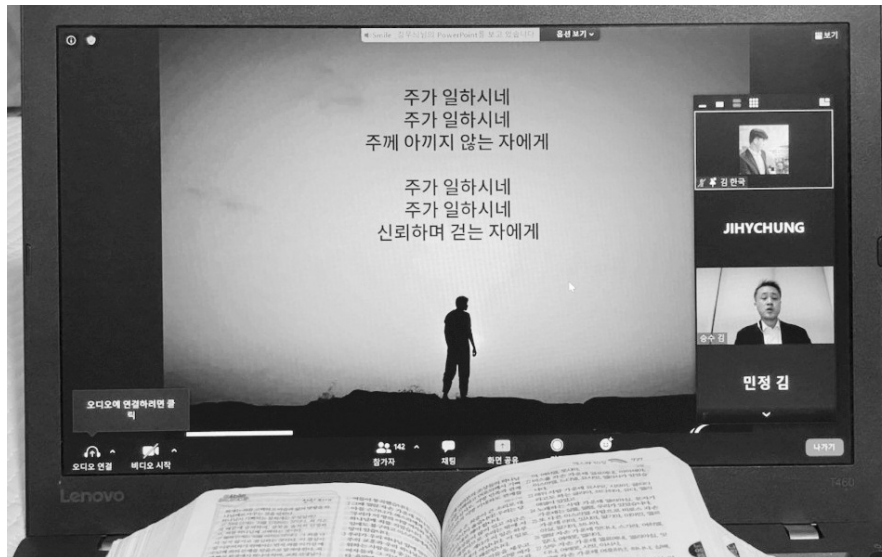
여호수아공동체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생활들이 지속되면서 예민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특히 동생이 올해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이 상황들이 더욱 안타까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심적, 영적으로 침체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여호수아공동체 예배 시간에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이하 STAND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다시 회복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52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으로 STAND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간혹 기도회 시작시간까지 퇴근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기도하거나 퇴근길 차 안에서 작은 소리로 기도회에 함께 했다. 야근하면서 업무에 몰두하게 되면 밤 10시가 되는 것을 잊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친한 동생이 "언니, 오늘은 어디 계시죠? 왜 안보이세요?"라고 연락을 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친한 언니가 "나 오늘 기도회 참석 해보려고 줌(ZOOM)을 처음 써봐서 그러는데 알려줄 수 있어?"라는 연락이 와서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 나의 결단을 주님께서 아시고 혹시 내가 기도의 자리를

기도할수록 더욱 간절하고 절실했다



정지현 자매가 STAND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다고 고백했다.

잠시 잊을 때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참 감사했다. 또한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한마음으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은혜였다.

목사님께서 STAND 기도회 설교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적이 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요 14:13~14).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아 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요 5:6).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의 힘든 상황을 아시지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며 기도를 하게 되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간절하고 절실했다. 기도회 초반에는 개인기도에 집중했는데, 날이 지날수록 공동체와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애쓰시는 교역자님들을 생각하며 "모두 힘든 상황에 믿음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잊지 않고 하게 되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된다. 나와 공동체, 교회와 나라, 열방의 영적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다. 우리의 삶과 영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정지현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공동체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몇 개월 전 이재훈 담임목사님께서 하신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경험되지 않는 까닭은 익숙한 생활, 익숙한 발걸음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내가 그랬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이 느껴지던 유학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함에 젖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갔다. 주께서 나를 찬양의 도구로 쓰주시기를 한평생 기도하며 바이올리니스트로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네가 공부하면서도 한인 교회를 섬겼지 않느냐, 한국 교회에서도 섬기고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떨겠니?"라고 권하셨을 때도, 주보에 아웃리치나 수련회, 여러 양육강의 신청을 받는다는 광고들을 봤을 때도 내 생각과 시선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

점점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줄고, 일에 싸여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불멘소리를 해냈는데, 막상 예정되어 있던 연주들과 수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쉬기도 했다. 시간이 남게 되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되기를



김미가 자매가 Build Up 기도회를 통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다짐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말씀드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성경을 보게 되고, CGNTV를 시청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양육 강의를 신청하고, 친구와 기도원을 다니게 되었다.

요셉공동체에서 '영적성벽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이하 Build Up 기도회)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52일'이라는 숫자

에 조금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요셉공동체에 새로 부임하신 김용민 목사님께서 Build Up 기도회를 위해 쓰신 글을 읽고 마음을 굳혔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도를 쌓으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것이 요셉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이라고 믿는다고 쓰신 글이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왔다.

Build Up 기도회에서는 요셉공동체에 관한

기도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선교사님과 환우, 나라를 위한 기도 등을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기도플래너를 미리 주보에 공지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각자 있는 곳에서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할 때 분명 멀리 계신 교역자님들과 멘토님들, 청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거리는 장벽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줄이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려는 것 같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만 한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정도로 한 걸음 앞서서 걸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무너진 성벽을 쌓았던 것처럼,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변함없이 하나님만 구하기를 다짐한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이 되기를 기도한다. 요셉공동체가 날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시고, 전심으로 섬겨주시는 교역자님들과 지체들, 하나님께 감사하다.

/ 김미가 자매(요셉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가스펠 프로젝트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는 13주 동안 진행된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그중에서 4번째 강의였던 ‘탕자의 비유’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언뜻 보면 주인공이 탕자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많은 품꾼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상징하는 먼 나라로 떠났다. 먼 나라로 떠난 작은아들은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다 결국 종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의 주인은 그의 아버지처럼 사랑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종들에게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는 자였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작은아들은 부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그를 섬기며 부정한 돼지들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존재와 영혼이 세상에 매이게 된다. 쥐엄나무 열매는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죄의 열매를 상징한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에 처하게 되어 그마저도 누릴 수 없는 삶으로 전락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진정한 변화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



김은아 자매는 가스펠 프로젝트 강의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얻는 진정한 변화와 기쁨을 배웠다.

그리워하며 향수 속에서 눈물 흘린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용납 받을 만한 근거들을 만들며 갔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리 준비한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얼룩진 인생 과거의 모습들을 지워주셨다. 손에는 반지를 끼워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켰으며, 그의 발에는 신발을 신겨 평안을 회복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쥐엄나무 열매로는 채워지지 않았던 아들의 배를 채웠다. 작은아들은 먼 나라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회개하는 탕자였다.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 단지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진단하

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용서, 자비, 선하심을 기억하고 인생의 방향을 그분께로 돌아키는 것이다.

작은아들이 돌아와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은 불평을 털어놓으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는 작은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와 자비를 이해할 수 없었다. 큰아들은 이제까지 아버지의 집을 나간 적이 없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종처럼 섬겼다. 그는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탕자였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회개 불가능한 탕자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으로 달려 나와 잔치로 초대하셨다.

우리 안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존재한다.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가 계속 삶의 영역 속에 존재하는 탕자(작은아들)와 아버지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종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탕자(큰아들)다. 어느 편에 있는지 아버지께로 돌아가 기쁨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 언제나 우리 생명의 공급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관계를 누리기를 바란다. / 김은아 자매(SNS공동체)

코로나19, 'CGNTV' 시청하며 극복하고 있습니다

CGNTV 시청수기

내 삶의 파수꾼 'CGNTV'

비가 쏟아지는 아침 남편을 출근시키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본다. 참으로 교만하고 자존심 내세우며 살아왔던 나는 32살에 도피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발을 내디뎠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래 기다리셨던 주님께서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셨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자라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반찬봉사, 선교팀, 새신자 등을 섬기며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양쪽 무릎이 아파왔고 작년 12월 양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3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무릎은 ‘절골술’을 받았다. 꼼짝 못 하고 병상에 누워 지내며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때는 CGNTV를 몰라서 다른 방송을 시청하면서 45일 동안 병원 생활을 했다.

퇴원하고 목발을 짚고 교회에 나가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TV를 시청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감사하게도 우리 집 TV에는 5개 기독교 채널이 나온다. 처음에는 채널을 돌려가며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CGNTV를 켰는데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를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반갑고 감사



김말숙 권사는 CGNTV를 통해 코로나19와 무릎수술로 인한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했는지. 그날부터 멈췄던 새벽기도회를 다시 시작했다. 매일이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의 날이 되었다. 주일예배는 1부, 2부, 3부까지 마음껏 드릴 수 있었다. 너무나 귀하고 크신 은혜의 선물이었다.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중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집안에 갇혀 있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전도대상자들과 예쁘고 사랑스러

운 주일학교 친구들을 생각하며 전도편지를 쓰고, SNS 메신저와 영상통화로 말씀을 나누며 교제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투병 생활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변했다.

지난 5월 말 왼쪽 무릎마저 수술했다. 이번 병원 생활은 지난번과 확연히 달랐다.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었다. 병실 환자들은 코로나19로 면회 오는 사람이 없다고 속

상해하고 시국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나는 휠체어에 예수님의 향기를 신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믿으니 지금 이 상황도 기쁘고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일어나 주변에 피해 줄까봐 조심조심 세수하고, 커튼을 치고 기도으로 하루를 준비했다. 새벽 5시 ‘생명의 삶’으로 시작해서 ‘새벽기도회’와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를 마치면 아침 식사 시간이 된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경필사를 하며 45일 동안의 병원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은 집에서 회복 중에 있다.

특히 CGNTV 새벽기도회 중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강해가 참 감사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는 말씀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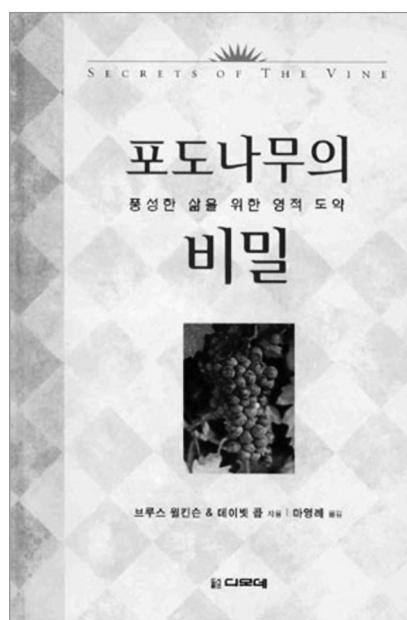
병상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온 CGNTV가 내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고 있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 김말숙 권사(김천제일교회)



책 읽어주는 목사

열매 맺는 삶의 비밀



〈포도나무의 비밀〉
브루스 윌킨슨, 데이빗 콕 저 | 디모데
| 9,000원

얼마 전 사회선교본부에서 리더십 화상 세미나가 열렸다. 그 세미나는 ‘비저너링(visioning)’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를 진행하던 강사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는 두 곡선이 교차하는데 하나는 훈련이라는 곡선이고, 또 하나는 가지치기라는 곡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훈련은 줄어들고, 가지치기는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지치기라는 단어에 사로잡혔다. 이에 관해 더 알고 싶어서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중고서적으로 주문해서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이 책은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네 가지 상태와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네 가지 상태를 가진다고 한다. ‘열매 없음’, ‘열매 있음’, ‘열매가 더 있음’, ‘열매가 많이 있음’이 그 상태들이다. 그런데 단지 5%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상태라고 한다. 10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왜 이렇게 적은 수인가?”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오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저자는 세 가지 단계를 말한다.

첫째, ‘들어올리기’ 단계다. 저자는 자기가 경험했던 포도농사 이야기를 꺼낸다. 포도농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가지다. 왜냐하면 포도 재배의 유일한 목적은 포도송이인데, 포도송이는 다름 아닌 가지에서 맺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는 가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 가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흙바닥에 뒹굴고 있다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 가지를 버릴까? 아니다. 오히려 가지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서 들어올릴 것이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치로 옮겨 놓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열매 맺게 하는 첫 번째 방식이다.

둘째 ‘가지치기’ 단계이다. 저자는 원예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꺼낸다. “포도나무의 무성하게 잘 자라는 성향 때문에 해마다 상당히 많은 나무를 베어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 덩굴이 너무 뻗뻗해져서 열매가 달려야 하는 부분까지 햇빛이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지치기가 안 되면 햇빛이 닿지를 못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두 번째 방식이다. 가지를 들어올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도록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내시는 것이다.

셋째 ‘거하기’ 단계다. 저자는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맺히면서 좌절감과 낭패감을 느꼈다. 평생의 수확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절망을 털어놓는다. 이 위기에서 저자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거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세 번째 방식이다. 결국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열매 맺는 삶과 관련해서 나를 진단하게 했고, 이에 대한 처방도 알게 했다. 나와 같이 열매 맺는 삶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두란노 신간

더 큰 은혜 그리고 시



감사와 공감
Thanks and Empathy

이원로 8번째 편영대역 시선집
Lee Woo-ro 8th Selected Poems

이원로 저
Lee Woo-ro

400쪽

〈감사와 공감〉
이원로 저 | 두란노 | 10,000원

이원로 장로는 과학과 의학 전문가로서 지성적, 감성적,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특하고 깊은 예술 세계를 개척해 가고 있다.

예술과 과학이 만났다. 더 깊고 풍성한 문장들이 가슴을 울린다. 이원로 장로(온누리교회)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을 한 장 한 장 읽을수록 더 크고 넓은 은혜를 마주하며 더 큰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

이원로 장로(시인, 인제대학교 전 총장)의 시에는 생명의 근원적 주제에 대한 탐색이 담겨 있다. 평생을 의사와 교수로 헌신한 그의 작품에는 과학과 의학에서 유래된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 그 지식을 배경으로 뛰어난 통찰력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름답고 진실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그려낸다.

시선집 〈감사와 공감〉은 ‘전야제’, ‘리허설’, ‘장도(壯途)의 서막’, ‘새벽’, ‘초점’을 주제로 5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5개의 주제에 맞춰 ‘단면’, ‘살아 있는 약속’, ‘리허설’, ‘경이로운 울림’, ‘질서’, ‘아직도’, ‘유한 속 무한’, ‘동경의 꽃’, ‘초점’, ‘불길’ 등 80여 개의 시를 선별해서 실어두었다.

이원로 장로는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였다. 〈빛과 소리를 넘어서〉, 〈햇빛 유난한 날에〉, 〈정진기와 망원경〉, 〈마침 좋은 때에〉, 〈어찌 등을 미시니요〉 등 33권의 시집과 7권의 시선집을 출간했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단면’

단면만 보고 어찌 전체를 알리
오래 보고도 자주 헛길게 되지
찰나의 영상으로 전체를 모르지
보는 것만으로 속단할 수 없지
진정 값진 것은 다 안 보이기에

이렇게 갑자기 닥칠 줄이야
제대로 준비도 못 하였는데
앞과 가지가 마구 날려 간다
줄기를 지탱할 겨를도 없이
뿌리가 비바람에 뿔뿔히 간다

여기서 맥박이 풀려 가는 듯
너머서 다시 박동이 시작되지
호흡이 꺼져 가는 듯 저기서
다시 숨결이 피어 나오지
묻히는 듯 거기서 솟아오르지

- 이원로 장로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 중에서



이촌공동체가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를 위해 온라인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 준비 한창!

한강, 영등포구로, 이촌, S브릿지, 브릿지33+공동체

깊어가는 가을, 온누리 공동체가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가 바로 그것. 한강, 영등포구로, 이촌, S브릿지, 브릿지33+공동체가 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강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는 12월 5일(토) '행복터치'를 주제로 막 오른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대상은 믿지 않는 가족이다. 가수 김영우, 색소폰 연주자 송솔나무, 길거리 찬양시역자 조셉 붓소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영등포구로공동체 맞춤형전도집회는 12월 12일(토) 오후 3시 유튜브

(사전녹화)로 열린다. 주제는 '12월의 초인종'이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지인 등이 대상이다. 오미희 권사, 트로트 가수 신인선, 배우 장광장로, 전성에 권사 등이 출연한다. 여성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이촌공동체는 12월 12일 오후 7시 유튜브 라이브로 맞춤형전도집회를 개최한다. 개그맨 표인봉이 진행하고, 트로트 가수 신인선, 이촌레이디스(남편 전도를 소망하는 아내들이 중심이 된 특별팀) 등이 출연한다. 주제는 '보이는 라디오-12월의 사랑'이다.

S브릿지공동체는 'Christmas

Blessings(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주제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영상과 SNS를 활용해서 온라인 맞춤형전도집회를 이어간다. 한 번도 교회에 다닌 적 없는 사람, 교회에 다닌 적은 있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복음과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예정이다.

브릿지33+공동체는 안개 순원과 순이나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지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전도집회를 기획 중이다. 성탄특별예배를 준비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차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

CGNTV와 군선교팀 교육 및 장비 후원

지난 10월 22일(목) CGNTV와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제2차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용산 국군중앙교회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육해공군 군종목사 45명이 참석했다.

제2차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온라인 방송장비 지원과 활용법 등을 전수했다.

CGNTV가 '미디어 제작 교육'과 '온라인 콘텐츠 라이브러리 활용방법'을 소개했고, 김태훈 목사(총회 교육국)가 '코로나19 시대 목회 패러다임과 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이날 교육에 참여한 45개 군교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등 50만 원 상당의 장비를 후원했다.

군선교팀 안상현 장로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현역 군종 목사가 250여 명 정도 되는데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서 110명의 군종 목사에게 장비를 후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문형준 목사(공군 1여단)는 "제2차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에서 배운 대로 장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한수 목사(공군)는 "장비 지원을 해주셔서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잘 활용해서 군 선교에 보탬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제6회 온누리선교 컨설팅 개최

'코로나19 이후 온누리선교 미래 방향'

코로나19 이후 온누리교회 선교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제6회 온누리선교 컨설팅이 '코로나19 이후 온누리선교 미래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Acts29비전빌리지에서 11월 17일과 18일 진행된다.

제6회 온누리선교 컨설팅 '코로나19 이후 온누리선교 미래 방향'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한국 교회 선교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넬슨 제닝스 박사(온누리선교연구원), '세계 선교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조셉 선교사(인터서브대표), '온누리선교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이주민 사역'을 주제로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교회 부모전도 특채널' 개설

부모 전도에 도움 되는 자료와 정보 공유

전도사역본부에서 믿지 않는 부모 전도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카카오톡 채널을 준비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부모전도 특채널'을 검색한 다음 채널

추가하면 전도사역본부에서 부모 전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정보를 공유해 준다.

문의: 02-3215-3214, 3649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 모집

온누리세계관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으로 진행된다.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왜곡된 생각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수강신청은 11월 1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3724-7666

창조신앙스쿨 수강생 모집

창조신앙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창세기 및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수강신청은 11월 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4658-0987

네팔 코로나19 격리시설 물품 지원

NGO 더멋진세상, 격리자 5천 명에게 제공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의 국경 지역 5개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5천여 명에게 한국 국제협력단(KOICA) 인도적지원 긴급구호사업의 일환으로 비상식량과 위생키트, 모기장 등을 제공했다. 이번에 NGO 더멋진세상이 제공한 물품은 코로나19 감염위기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은 KOICA와 함께 네팔 병원엔 바이러스 수송 배지(viral transport media, VTM) 11,00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NGO 더멋진세상 관계자는 "네팔의 최대 명절 더사인을 맞아 귀국한 네팔인을 잘 섬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 모집

11월 9일~11일 가평 마이더스 호텔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는 11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가평 마이더스 호텔에서 진행된다.

총 12팀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두란노어머니학

교 홈페이지(www.mother.co.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알콩달콩부부학교는 '부부의 하나 됨'을 위하여 건강한 떠남, 성경적 가치관, 부부의 성, 대화법, 재정 관리, 자녀양육에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2-2182-9114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11월 7일~12월 12일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일.하.세.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1월 14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일.하.세.아카데미에서는 기독교적

직업관, 문화관, 재물관, 성공관 등을 교육한다.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일터문화', '일터에서의 성공', '일터와 재물',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성장'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문의: 010-4122-7255

■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김양숙 성도(송파A공동체)

돌아보고, 회개하며, 도전을 받다

와이무슬림 수강신청에 대한 고민은 15기 JDS 학생으로 터키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부터 시작됐다. 아웃리치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터키의 무슬림을 만나 전도를 해 보았다. 무슬림 지체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와이무슬림 강의를 신청했다.

와이무슬림 수업을 통해 기도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의 비자, 안전, 재정, 영적 돌봄 등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현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 충만을 함께 구했다.

무슬림의 공동체는 강력하다. 그것은 신앙 이라기보다 종교로 가장된 문화이다. 이슬람의 전파력은 이스라엘과 서구세력에 대한 저항으로 증폭된다. 역사적으로 십자군전쟁 때부터 시작된 오랜 피해의식이 깔려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의 저자 나빌은 그의 생각의 변화가 따뜻한 크리스천인 데이비드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나빌은 진리를 탐험하고자 하는 똑똑한 젊은이였다. 나빌은 데이비드와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는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가?’, ‘바울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예수를 이용해 교회개척을 하였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찰을 한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나빌은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정직한 재고를 한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한 사람의 무슬림을 고민하게 하는 데이비드와 같은 따뜻한 친구인지, 무슬림인 이웃을 가까이 둔 적은 있는지 고민해보았다.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존재였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20만 명에 육박한다. 그들을 불편한 존재로만 두어야 할까? 교회는 그들의 존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태원의 이슬람사원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는 손길에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위기가 고전하면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신 감사님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을 찾으려 다니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럴싸한 기도제목만을 찾는 내 모습을 회개했다. 이제껏 무슬림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소임으로만 나의 역할을 한정했던 것 같았다. 이번 와이무슬림 수업은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도전 받는 기회였다.

■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지연 성도(서초B공동체)

의미 있는 한 걸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의 아름답고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향기(아로마)에 대해 공부하고 가르치는 ‘아로마테라피스트’다. 더 깊고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자 올해부터 대학원 석사과정(노화의과학)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며 생물학과 약리학, 생애주기 건강증진학 등의 과목에서 진화론을 자주 접하게 되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들 중에는 수업에 앞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며 이론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화론을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내 안에 창조신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힘든 대학원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창조신앙아카데미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며 정말 즐거웠다. 매주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 창조과학회 강사님들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

다.

물론 모든 설명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창조론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

앞으로 서적도 많이 읽고,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더 할 생각이다. 창조세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권능이 있으니 말씀을 정확하게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긴다면 앞으로 만날 혼란스러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진화론이 증명된 진리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널리 알리고 있는 창조과학회 스태프들의 노고와 열심에 큰 박수와 존경을 보내드리고 싶다. 나도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식물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당당히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박훈민 성도(이촌공동체)

말씀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나에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동체보다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주일에 배에만 충실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의 교제가 신앙 성장에 정말 중요하다는 편견을 들으면서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순예배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머리로 알고 있던 신앙의 기초와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신앙의 선배와의 여러 번의 교제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경험을 했다. 오랜 신앙생활이 오히려 독이 되어 교회와 공동체 활동에 소홀했던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나의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고, 매너리즘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계기로 나와 우리 가족은 순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회의 다양한 양육프로그램과 사역과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에는 주일예배만 충실하게 드리던 반쪽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장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들이 더욱 기대된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소망한다.

매주 양육자님을 만나서 말씀과 삶을 나누었던 은혜의 시간들이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금방 지나갔다.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고, 기도해주셨던 이경호 양육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도 이경호 양육자님 같은 양육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동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한다.

■ 길공동체 라이브기도회 간증



/ 노유미 자매(길공동체)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누리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만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상 예배는 나의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는 주님께 집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낯익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온라인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와 영상 콘텐츠에 조금씩 피로감이 더해져 가던 때였다. 평소 같았으면 금요철야기도회도 찾아다니던 나였다. 소리 내어 기도해야 마음이 시원해져서 시간을 내어 기도회를 찾아다니던 나였다. 그런데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기도회는 웬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뭐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과 의무감으로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했다.

줌(ZOOM)을 활용한 길공동체 라이브기도회가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흘렀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아니어도, 찬양이 없어도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와 같은 공간에

계시는 그분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목마르고 갈급해서 기도가 더욱 뜨거웠는지도 모르겠지만 한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 감사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와 기도하는 모든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과 상황 속에서 만나려고 했다’는 생각이 부끄러웠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모이고 그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이 부여하시는 마음을 함께 높이기를 바란다. 혼자서는 깊이 기도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누리자”, “주님의 임재를 같이 누리자”라고 말해주고 싶다.

장로칼럼

고백(告白)



이용만 명예장로
(OCC공동체)

요즘 혼자 서재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책을 보다가도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신호를 보내올 때면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가만히 눈을 감곤 한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한국전쟁 중 우연히 떠나온 삶의 유랑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줄은 몰랐다. 정들었던 고향집과 낯익은 풍광, 가족과 함께했던 유년기, 함께 자란 말과 양 떼들까지, 세월이 흘렀어도 결코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어제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 부지런하셨던 부모님 덕에 비교적 유복하게 보냈던 어린 시절도 잠시,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아버님께서는 온갖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자식들을 지키고 공부시키려 노력하셨다. 두 발의 총상으로 천국 바로 앞까지 갔으나 소대장의 도움과 사경을 헤매던 나를 들것으로 낄라 준 미군 병사들 덕분에 깨어날 수 있었다. 전역 후 아버님께서 바라시던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 대학교 합격증을 가지고 캠퍼스로 달려갔는데 등록금 낼 돈이 없어 절망하며 되돌아오던 캄캄한 밤 열차 화물칸에서 흐느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일제 치하에서부터 해방, 분단, 한국전쟁과 재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까지 그야말로 현대사를 관통한 우리 세대 중에서 고생과 사연 없는 삶이 어디 있었는가?

영킨 실타레 마디마디를 풀 듯 삶의 고비 고비를 넘겨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하고 감사할 제목이다. 내가 술한 우여곡절의 순간과 세월의 강을 건너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 덕분이다. 그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스스로를 지탱하게 해준 힘과 판단의 준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대다. 비록 전쟁 중에 헤어졌지만 나는 언제일지 모를 재회를 기약하면서 스스로 ‘삶의 매 순간, 결코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한결같이 가다듬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도 시련을 겪고 사선에 설 때마다 나를 지켜주셨고, 때로는 채찍과 인내와 재기의 능력을 주셨다. 고난과 선택의 과정에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사랑의 하나님 날개 밑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땅 위에 나를 세워주신 부모님의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길잡이이자 한결같은 지향점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몇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를 위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준 이연상 전우, 청년기 친동생같이 아끼며 믿음을 갖게 해주신 김석홍 목사님과 어머니 같은 김병인 권사님, 분에 넘치는 명예장로의 직분을 주신 하용조 목사님과 이형기 사모님, 한 가족처럼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배려해 주시는 이재훈 목사님과 이정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님께 서 구워주신 찹쌀떡 세 개와 손수 떠 주신 양털 스웨터를 입고 집을 나섰던 17세 소년이 어느덧 미수를 맞이하게 되었다. 잘한 것도 없는 과정을 글로 남기는 것은 후손들이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오늘날까지 내 삶의 모든 과정에 묵묵히 동행하면서 항상 곁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은 귀한 아내 주경순에게 감사하다. 이봉준 아버님과 전영준 어머님께 이 글을 올려드린다.

권사칼럼

나의 일상이 된 최고의 행복



이영혜 권사
(송파B공동체,
서빙고 온누리
전도학교 사역자)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매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내가 전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가 나의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전도가 나의 일상이 될 만큼 익숙하게 만들어준 도구가 바로 <최고의 행복 5분 전도지>다.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고의 행복 5분 전도지>만한 도구가 없다. ‘짧은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단시간에 전한 복음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영혼의 마음 밭에 작은 씨앗을 떨어뜨리시기를 원하며 전도대상자들을 만나러 간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사람보다 거리에서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복음을 접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마음을 열기가 더 쉽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내 전도에 힘을 실어 주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구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는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말씀의 힘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다양한 전도대상자들을 만난다. 그들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 지고 가는 삶의 문제들이 모두 다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 또한 각기 다르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알맞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

하신다. 내가 가진 능력, 환경, 물질, 심지어 실수까지도 활용해서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신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한 청년을 만났다.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 베트남에서 온 청년임을 알게 됐다. 그런데 청년이 한국말을 꽤 잘하기에 칭찬을 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스고이(일본어로 ‘대단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청년이 일본어를 아냐고 물으며 자신도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말했다. 그 청년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기에 일본어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청년과 헤어지면서는 연락처를 물어 안산M센터에 연결해주었다. 더 많은 고향 지체들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그날은 의도치 않은 나의 실수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또한 내가 아는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 하루는 지하철에서 고등학생을 만났다. 학원에 가는 줄 알고 말을 붙였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러 간다고 했다. 그 학생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자 몇 정거장을 더 갔다.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쫓겨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고 했다.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이라고 했다. 그 학생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 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딸이 학창시절 했던 공부 방법을 알려주었다.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빼먹지 않고 전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학생이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했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내 작은 노력과 능력도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도가 익숙해져야 한다. 내가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가 나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전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김용민 목사
(요셉공동체)

며칠 전 대학로에 있는 청년비전센터에서 새벽설교를 했다. 예배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섰 다.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연 곳이 많지 않아서 대학로 거리를 계속 거닐었다. 곳곳에 비어있는 점포들이 나의 눈길을 끌었다. 몇 집 걸러 하나씩 ‘폐업’이나 ‘점포정리’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 이미 꽤 많은 곳이 비어있는 상태였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슴 아픈 현실의 단면 아닌가 싶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이 재난의 시대에 짊어지고 등장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허무맹랑

한 상상 말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상상이 기도와 연결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프리실라 사이러가 쓴 <기도의 골방>에 나오는 말이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문이다.”

그렇다.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이곳으로 끌어오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다.

요셉청년부를 담당하게 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언택트로 인사하고, 영상 예배로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와중에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영적성벽재건 52일 기도회 Build Up’ (이하 Build Up 기도회)이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52일 동안 재건했던 것처럼,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52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 매일 밤 10시,

70~8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갖가지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Build Up 기도회를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고 해도 인간의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 아무리 언택트 기도회라도 성령의 온도까지 차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이지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기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겨우 집에 돌아왔거나 야근하는 와중에도 이어폰 끼고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기도에 대한 갈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사람에게 365일 365도의 온도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365일 매일의 기

도 온도가 필요한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있다. 혹독한 변화 속에서, 재난의 시련 속에서, 우리 내면의 호흡도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다. 가다듬고 숨을 고르며 깊이 영적 심호흡을 해야 할 때다. 어떻게 영적 심호흡을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순간순간이 영적 심호흡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 박동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영적 박동을 멈추지 않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최후의 순간까지 영적 박동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셨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2차적 원인이 기도”라면, 프리실라 사이러가 말했다. “하늘의 능력을 지상으로 끌어오는 문이 기도”라면, 우리는 오늘날 영적 온도계로 기도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적생활 방역이 시급하다

그러고 나서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을 단단히 잠가야 합니다.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이 법문에 들어가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회 언론과 교계 일부 언론이 법 제정 반대하는 운동을 가리켜 ‘가짜 뉴스를 낱발한다’고 비판합니다. 무엇이 가짜 뉴스입니까?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이 가짜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게 가짜 뉴스입니까? 과학적, 의료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는 것과 그런 염색체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남자나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염색체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있는 것처럼 명문화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가톨릭 로마 교황이 동성결혼법을 지지하며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사람이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문을 연 것입니다. 이러한 문을 여는 일이 없도록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답답한 모습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은 없습니다.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공동체 일원으로 속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 다. 동기가 다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력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생각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반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마땅히 거주해야 할 사람들을 거주시킴으로써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계보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왔는지를 조사합니다. 인종을 차별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종을 차별하기 위해서라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입니다. 레위인들을 수종 드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았던 기브온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392명이나 돌아왔습니다. 일반 레위인들보다 훨씬 많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종차별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마땅히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생활 방역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속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미덕이 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순으로부터도 거리두기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서 같이 붙어 앉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나누며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주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에 거리를 둔다면 영적 방역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화상으로든, 전화로든, 편지로든,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나누야 할 관계에 더 깊이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쁜 일이 생길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살아 있는 성도들은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방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중보기도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방역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제사를 회복시키고, 지도자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생활 방역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활예배로 면역력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와 절대로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감으로써 어려운 시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전도 클리닉 - 2. 회심에 대한 이해 I

회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체험

회심이란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합친 말이다. 죄와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삼상 7:3, 렘 4:1, 겔 14:6) 주 예수께 돌아와 따르는 것(막 1:15, 눅 3:8, 24:27, 행 5:31, 벨후 3:9)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회심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돌이킨다’는 뜻이다. 회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동과 태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포함한다(삼상 7:3, 렘 4:1, 겔 14:6). 회심에는 죄에 대한 자백과 뉘우침(을 2:12~13, 렘 3:13)이 수반된다. 신약에서 회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단어는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 (돌아오다)이다. 죄인이 돌이켜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및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막 6:6, 히 4:2).

핀들리 에지는 “믿음이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이심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고든 스미스는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과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결단하는 행동이며,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몸짓”이라고 정의했다. 조셉 얼라인은 “회심은 마음과 생활 양면에 걸쳐 일어나는 철

저한 변화”라고 말했다. 참된 회심을 하려면 죄 사함,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선교학의 관점에서 회심은 첫째,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회심) 주 예수께로 오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셋째, 회심은 변화의 출발점이며 과정이다.

회심의 핵심 요소와 증거들은 첫째,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둘째, 세계관 및 총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죄사함과 거듭남’,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세계관과 실재를 보는 관점의 변화’ 등이다. 셋째,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 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넷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마 7:21).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마 28:19-20)이며, 특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마 28:19-20).

주의할 것은 회심처럼 보이는 유사회심도 있다는 것이다. 유사회심으로 쉽게 오해되는 특징들은 ‘개종 및 신학적 신조에 동의하는

것’, ‘행동과 종교적 의식(儀式) 변화’, ‘영접 기도 또는 강단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행동’, ‘완벽주의’, ‘고행’ 등이다. 이 특징들은 참된 회심을 한 성도들의 행동이나 태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특징들이 곧 참된 회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참된 회심과 유사회심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거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급하게 영접 기도를 촉구하거나 회심 없이 영접기도 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선언하는 실수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심의 목적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에 있지 않고, 성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고든 스미스는 “회심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결과인 지옥이나 정죄나 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으며, 변화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회심 체험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회심은 크리스천의 확실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하다. 회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 다 해도 죄 사함과 거듭남을 얻지 못하며 죄

의 심판을 받게 된다(요 3:3). 회심은 한 개인의 세계관 변화 즉, 개인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된다. 둘째, 회심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요하다. 전도자는 회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경험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 분별이 없으면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전하지 못하거나 회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많은 사람을 명목상의 성도로 만들어낼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회심은 죄 사함과 거듭남을 포함하여 크리스천의 총체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전도자는 복음과 회심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 참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전해야 한다.

목상: 회심의 분명한 이해와 회심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조윤희 선교사
(GMTC(한국선교훈련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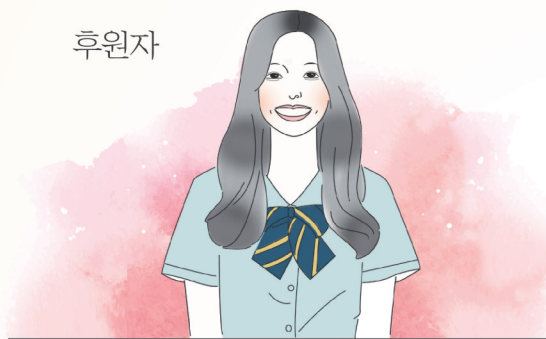
CGNTV 후원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미디어 선교,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후원자



송예원 학생 장학금 전액 후원

“제 작은 보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 브라질 아마존 사역

“아마존 오지에서의 사역이 두렵지 않은 건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CGNTV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연자



성우 성병숙 <예수님이 좋아요> 출연

“20년 동안 드린 수고와 헌신,
10년 동안 드린 후원,
멈추지 않고 CGNTV와 함께 하겠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CGNTV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정 기 후 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 R S 060-705-0000

후 원 문 의 02-796-2243



신규후원
바로가기



특별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